

2019년 3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경기 둔화 우려 지속되며 매물 출회 ECB,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1.7%→1.1%)

변동성 확대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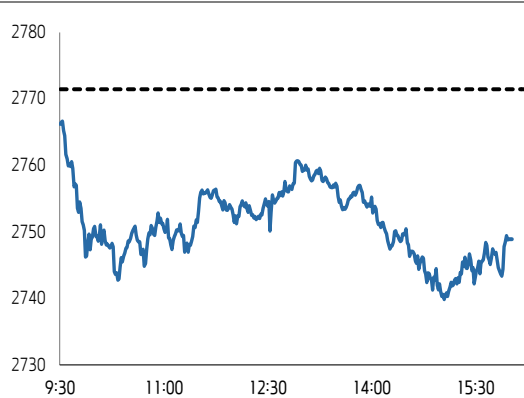
미 증시는 ECB 가 유로존 경제전망을 하향 조정하자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며 하락. 비록 알려져 있던 내용이지만 이를 빌미로 Cyclical 이 하락 주도. 장 후반에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경제전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자 낙폭이 더욱 확대.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유틸리티, 리츠금융, 통신 등 경기 방어업종의 강세가 특징(다우 -0.78%, 나스닥 -1.13%, S&P500 -0.81%, 러셀 2000 -0.88%)

OECD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0 을 하회한 99.2 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요 기관들은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둔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미국은 4 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2.6%를 기록. 그러나 애틀란타 연은이 GDPNow 를 통해 1 분기 성장률을 0.5% 증가로 전망하고 있어 부담. 연준도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이 미약한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

오늘은 ECB 가 올해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1.7%→1.1%). 드라기 총재는 이에 대해 “무역분쟁과 브렉시트 위험 등이 주요 요인이며, 경기침체 가능성이 예상보다 깊다” 라고 주장. 이 여파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위험자산 선호심리 약화. 그러나, 중국 정부가 감세안 등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며, ECB 또한 실물경기 부양을 위해 장기대출 프로그램인 ‘TLTRO-III’를 도입. 더불어 미 연준도 금리인상 시기 지연 발표하는 등 글로벌 각국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 경기침체 가능성은 높지 않음. 한편, 미-중 무역분쟁, 미 행정부의 섯다운, 브렉시트 등 경기 둔화 요인 중 일부가 해소되었거나 해소 기대감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

다만, 미국 S&P500 12m Fwd PER 이 10 년 평균(14.7 배)을 크게 상회한 16.2 배를 기록하고 있는 등 밸류에이션이 긍정적이지 못해 경기 둔화 우려를 빌미로 매물을 내놓고 있으며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65.79	-0.45	홍콩항셱	28,779.45	-0.89
KOSDAQ	736.83	-1.32	영국	7,157.55	-0.53
DOW	25,473.23	-0.78	독일	11,517.80	-0.60
NASDAQ	7,421.46	-1.13	프랑스	5,267.92	-0.39
S&P 500	2,748.93	-0.81	스페인	9,249.90	-0.50
상하이종합	3,106.42	+0.14	그리스	704.43	-0.39
일본	21,456.01	-0.65	이탈리아	20,697.56	-0.7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부분의 업종 부진

크루거(-9.95%)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여파로 하락 했다. 백화점 업체인 벌링톤 코트 팩토리(-11.90%)도 부진한 실적과 전망 하향 조정으로 급락 했다. 로스스토어(-2.14%), 어반 아웃피터스(-2.31%) 등도 동반 하락 했다. 페이스북(-1.96%)은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 출회되었으며, 개인정부 우려로 일부 회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락 했다. 알파벳(-1.21%)도 동반 하락 했다. 아마존(-2.58%)은 87개의 pop-up stores 폐쇄 소식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UPS(-1.83%), 페덱스(-2.99%) 등 물류회사들과 아메리칸 항공(-1.65%), 유나이티드 항공(-2.04%) 등 운송 회사들은 은 경기 둔화 우려로 매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하락 했다. 캐터필라(-1.51%) 등 기계 업종과 슐룸베르거(-2.03%), 할리버튼(-3.16%) 등 원유 서비스 업종도 경기 둔화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로 하락 했다. JP모건(-0.72%), BOA(-1.01%)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반면, AEP(+0.23%) 등 유틸리티와 PSA(+0.45%) 등 리츠 금융, AT&T(+0.37%) 등 통신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3%	대형 가치주 ETF(IVE)	-0.75%
에너지섹터 ETF(OIH)	-1.85%	중형 가치주 ETF(IWS)	-0.71%
소매업체 ETF(XRT)	-1.39%	소형 가치주 ETF(IWN)	-1.10%
금융섹터 ETF(XLF)	-1.03%	대형 성장주 ETF(VUG)	-0.97%
기술섹터 ETF(XLK)	-0.95%	중형 성장주 ETF(IWP)	-0.70%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2.50%	소형 성장주 ETF(IWO)	-0.64%
인터넷업체 ETF(FDN)	-1.18%	배당주 ETF(DVY)	-0.58%
리츠업체 ETF(XLRE)	-0.09%	신흥국 고배당 ETF(DEM)	-1.08%
주택건설업체 ETF(XHB)	0.00%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02%
바이오섹터 ETF(IBB)	-0.66%	미국 국채 ETF(IEF)	+0.34%
헬스케어 ETF(XLV)	-0.79%	하이일드 ETF(JNK)	-0.06%
곡물 ETF(DBA)	-0.80%	물가연동채 ETF(TIP)	+0.28%
반도체 ETF(SMH)	-1.09%	Long/short ETF(BTAL)	+0.7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9.13	-0.57%	-0.17%	+0.37%
소재	340.90	-0.89%	-0.92%	+1.72%
산업재	624.08	-0.59%	-2.54%	+0.98%
경기소비재	858.46	-1.37%	-0.99%	+0.37%
필수소비재	554.07	-0.56%	-0.98%	+0.73%
헬스케어	1,034.76	-0.79%	-2.27%	-1.41%
금융	429.74	-1.06%	-2.17%	-0.50%
IT	1,222.40	-0.92%	-1.44%	+1.67%
커뮤니케이션	155.08	-0.81%	+0.70%	+1.51%
유틸리티	289.04	+0.26%	+0.53%	+4.17%
부동산	215.19	-0.07%	+0.21%	+1.2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위험자산 회피 우려 부각

MSCI 한국 지수 ETF 는 1.67% MSCI 신흥 지수 ETF 도 1.85% 하락 했다. 야간 선물은 외국인 순매도(-1,379 계약) 여파로 1.50pt 하락한 277.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4.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양책을 내놓거나 긴축을 지연시키고 있어 경기 침체로의 전환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더불어 이미 일정 정도 알려져 있던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급격한 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연초 대비 미 증시가 10% 내외 상승하는 등 글로벌 증시는 강세를 이어왔으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둔화(S&P500 1 분기 영업이익 yoy -3.2%)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물 출회는 불가피하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부담이다. 더불어 달러화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보였다는 점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시장 견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22.6 만 건) 보다 소폭 감소한 22 만 3 천 건으로 발표되었다. 4 주 평균 신청건수도 지난주(22 만 9,250 건) 보다 감소한 22 만 6,250 건으로 발표되었다.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수치다.

2 월 미국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5 만 2,988 건) 보다 크게 증가한 7 만 6,835 건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지난 2015 년 7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수치인데 일부 서비스업체들의 매장 철수가 주요 요인이었다.

4 분기 미국 생산성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해 시장 예상치(QOQ +1.6%)를 상회했다. 더불어 고용비용도 전분기 대비 2.0% 증가해 예상치(QOQ +1.8%)를 상회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달러 연중 최고치 경신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수출 차질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PDVSA 의 유조선 일부를 운영하던 독일 회사가 요금 미납 등을 이유로 10 척의 선박을 반환하겠다고 밝히자 이를 통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제재로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유로화가 ECB 통화정책 회의 이후 약세를 보이자 연중 최고치를 경신 했다. ECB 는 유로존 성장률을 큰폭으로 하향 조정 하고 TLTRO 를 발표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발표 했다. 이 여파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ECB 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올해 유로존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1.7%→1.1%) 하자 하락했다. 이를 빌미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브레이너드 연준이사는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어 금리 경로를 하향 조정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한 점도 금리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지난 2 월 14 일에도 브레이너드 이사는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 라고 주장 했었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낙폭은 제한 되었다. 구리 및 비철 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속에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4% 하락 했으나, 철근은 보합을 기록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6.66	+0.78	-0.98	Dollar Index	97.670	+0.82	+1.57
브렌트유	66.30	+0.47	-0.02	EUR/USD	1.1187	-1.06	-1.62
금	1,286.10	-0.12	-2.28	USD/JPY	111.66	-0.10	+0.24
은	15.040	-0.30	-3.80	GBP/USD	1.3076	-0.71	-1.41
알루미늄	1,864.00	-0.11	-2.46	USD/CHF	1.0121	+0.72	+1.39
전기동	6,423.00	-0.70	-1.32	AUD/USD	0.7013	-0.27	-1.14
아연	2,735.00	-1.90	-1.55	USD/CAD	1.3458	+0.12	+2.17
옥수수	365.25	-1.95	-1.48	USD/BRL	3.8765	+0.98	+3.40
밀	438.25	-2.61	-4.62	USD/CNH	6.7344	+0.26	+0.46
대두	902.50	+0.06	-0.85	USD/KRW	1129.00	+0.02	+0.88
커피	96.85	-1.87	-1.63	USD/KRW NDF1M	1134.45	+0.60	+0.86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639	-5.41	-7.57	스페인	1.040	-7.00	-13.10
한국	2.010	-1.00	+3.30	포르투갈	1.337	-8.20	-13.00
일본	-0.007	-0.30	+1.50	그리스	3.802	+6.60	+15.00
독일	0.067	-6.10	-11.60	이탈리아	2.467	-12.10	-28.20